

신진예술가 무대 본격 펼쳐진다

전주문화재단, 최산하 클라리네티스트 공연 · 시각예술 분야 박로운 작가 전시 개최

전주의 미래 예술계를 이끌어 갈 청년 예술가들이 본격적인 작품 발표를 시작한다.

23일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에 따르면 2025년 전주신진예술가지원 사업 선정자 가운데 가장 먼저 실연 무대에 오르는 주인공은 공연예술(음악) 분야의 클라리네티스트 최산하 씨다. 전북대학교 예술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2023년 첫 독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며 탄탄한 연주 경력을 쌓아온 실력과 연주자다.

최산하 씨는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전주 치명자신상지 평화의전당 모두네홀에서 'Baro-Cla: 바로크와 클라리넷의 만남'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바로크 음악과 현대 악기인 클라리넷의 독창적인 조화를 시도하며, 클라리넷의 표현 가능성과 음악적 깊이를 확장하는 실험적 시도로 기대를 모은다.

최 연주자는 "바로크 음악을 클라리넷으로 연주하며 시대를 뛰어넘는 연결을 느꼈고, 이를 '최산하'라는 장르로 풀어내고자 했다"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전주문화재단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전석 2만 원이며, 예매는 010-

5459-9682로 문의하면 된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는 시각예술 분야의 박로운 작가다. 혼합매체 콜라주 작업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해 온 그는 개인전 '열림'을 통해 종이, 자투리, 가죽 등 다양한 재료를 조합한 신작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특정한 서사나 상징을 배제하고, 재료 본연의 질감과 형태에 집중해 감각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박 작가는 "서로 다른 재료가 만들어내는 고유한 결이 이번 전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림'전은 8월 5~10일까지 교동미술관 2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부대 프로그램 일정은 추후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지난 3월 선정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준비해 온 신진예술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발표 무대가 그들의 실험과 고민, 결과물을 시민들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최산하 'Baro-Cla: 바로크와 클라리넷의 만남' 공연 포스터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지난 19~21일까지 '소리프론티어'에 선정된 4개 팀을 대상으로 한 합숙형 워크숍 '슈퍼워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소리프론티어' 합숙 워크숍 성료

전주세계소리축제, 창작 역량 강화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이광준)는 지난 19~21일까지 '소리프론티어'에 선정된 4개 팀을 대상으로 한 합숙형 워크숍 '슈퍼워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소리프론티어'는 7월 중 1차 공개 모집과 2차 실연 심사를 거쳐 △우리 음악집단 소속 △시나비 △공상 △조선아 이렇게 총 4개 팀을 선정했다.

이 팀들은 19~21일 2박 3일간 합숙 워크숍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 팀들은 △국내외 음악시장 전문가들의 특강과 멘토링 △팀별 쇼케이스 방향 설정 △레퍼토리 구성 및 무대 운영 전략 수립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 역량을 끌어올렸다. 특히 천재현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한 예술 자문단의 심도 깊은 피드백은 참가자들의 창작 방향을 다듬고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서울분관
전북도청 전시실 대관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오는 8월 5~14일 서울분관 및 도청 전시실 대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서울 종로구 소격동 인근에 위치한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은 1~2층 전시실(234.58㎡)을 활용해 2026년 2월 25일에서 12월 20일 사이 2주 단위로 총 17회의 대관 전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전북 출신, 도내 거주 또는 작업실을 둔 예술인으로 최근 7년간 개인전 3회 이상 또는 단체전 5회 이상 이력이 있는 작가다. 단체전의 경우, 최근 7년간 전시 기획 3회 이상 이력이 있는 기획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참여 작가의 50% 이상이 전북 작가로 구성돼야 한다.

이어, 도청 1층에 위치한 전시실은 약 264㎡(80평) 규모로, 회화·조각·공예·사진·영상 등 다양한 시각예술 장르의 전시가 가능한 공간이다. 전시 대관은 2026년 2월 2일부터 12월 18일 사이 2주 단위로 운영, 총 22회 진행할 예정이다. 대관료는 무료다.

대관 신청 자격은 전북 출신 혹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작업실을 두고 활동 중인 예술인으로, 일정한 개인전 혹은 단체전 이력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가 접수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임실시장서 열리는 찾아가는 소리축제

26일 임실 출신 국악인 강나라 · 살롱드국악 선율모리 공연

전북을 대표하는 전통음악 축제인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사전홍보를 위한 특별한 국악 공연, 찾아가는 소리축제가 오는 26일 11시 임실시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하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제로 임실 출신 국악인으로 활동 중인 강나라, 전통음악과 서양 선율악기의 조화로운 선율을 선보이는 살롱드국악 선율모리가 국악 무대를 통해 소리축제 분위기를 미리 띄울 예정이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매년 국내외 우수 국악인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전통음악 축제로 올해는 '본향의 메아리'라는 키워드 아래 8월 본행사를 앞두고 도내 각지에서 사전 공연을 진행 중이며, 이번 임실 공연은 지역 출신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무대라는데 의미가 있다.

강나라 소리꾼은 2020년 판소리 콘서트 '놀음'을 기획하여 단독 리사이틀로 진행했고, 2023년도 한국예총회장상 수상 등 현재 국내에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치며 판소리와 창작 국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예술인이다.

강나라 소리꾼은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여는 마당으로 고향 무대에 선다는 건 예술가로서 더없는 영광이고, 그만큼 책임도 크다"며 "고향의 정서를 담아 정성껏 준비한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살롱드국악 선율모리는 가야금, 기타, 첼로 등 국악, 서양, 실용의 선율악기가 만나 한국 전통음악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전통음악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성



이 공존하는 복합 예술 창작 단체다.

이번 공연에서 국악의 깊은 멋에 서양 악기와 실용음악 요소를 결합해 한국 전통음악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퓨전 국악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 출신 국악인 강나라님과 복합 예술 창작 단체인 살롱드국악 선율모리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지역 정체성과 예술적 감동을 동시에 담은 무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 문화유산 그림전' 개최

어린이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우리 문화유산'은 어떠할까 라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린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오는 7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설전시관 로비에서 '제33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그림전은 지난 6월 23일 도내 초등학교들이 참가한 '제33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로 꾸며졌다. 입상에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6명, 특선 18명, 입선 55명 등 총 80명의 어린이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전주 효천초등학교 나예빈(5년) 학생의 '나전철 빗집을 연 순간'을 비롯해 총 25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참가



최우수상 나예빈 학생 '나전철 빗집을 연 순간'

어린이들이 바라본 박물관 유물의 모습이 각각색의 형태로 도화지에 구현됐다"며 "개성 넘치고 창의적인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도 함께 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